

# 목포시 '4색의 도시' 브랜드 마케팅 박차

### 항구도시·맛의 도시·슬로시티·문화도시 적극 알리기 목포 관문에 깃발 설치하고 서울 등 수도권 홍보 추진

민선 7기 출범 초부터 김종식 목포시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목포를 팔아먹겠다'고 강조해 왔다.

김 시장은 목포시를 팔아먹기 위한 전략으로 '4색(色)의 도시'를 내세웠다. 네가지 컬러는 '항구 도시, 맛의 도시, 슬로시티, 문화 도시'이다.

이와 관련 김 시장은 "그동안 목포는 거칠고 폐쇄적이라는 왜곡된 이미지가 덧씌워져 있어 '목포를 어떻게 포장해야 할지'를 고민해왔다"면서 "목포는 수도권 1·2호선과 호남선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고, 섬과 해양의 출발점이자 관문이다. 여기에 맛·여행 등 목포 본연의 매력도 많다. 이 같은 장점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도시 이미지를 바꾸는 브랜드화가 해법이라고 생각해 4색의 도시를 구상하게 됐다. 목포는 네가지 컬러를 지닌 멋진 도시"라고 설명했다.

목포시가 민선 7기 2년 차를 맞아 김 시장의 큰 그림인 '4색의 도시'가 완성 단계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브랜드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9월 목포의 차별화된 매력

과 미래가치를 함축한 브랜드 슬로건 '남만항구 목포'를 확정하고 올해에는 브랜드 디자인을 개발해 공문서는 물론 광고탑·플래카드·유인물 등 다양한 도시 브랜드 이미지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또 지난 4월에는 서울에서 대대적인 '맛의 도시 목포' 선포식을 갖고 전국에 맛의 도시임을 공표, 목포 맛집 100선 등 각종 후속대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이탈리아 오르비에토에서 열린 국제 슬로시티 총회에서 국내 16번째로 국제슬로시티 인증을 받았다. 오는 10월 1일 목포시민의 날 행사에서 국제슬로시티 선포식을 갖고 내년부터 관련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펼치게 된다.

특히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매주 금·토·일요일에 세계마당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왕년에 목포 축제, 목포 문화제 야행, 항구 축제 등 문화예술 행사들이 8주 동안 목포 도심 곳곳에서 펼쳐져 '문화 도시'로의 위상을 전국에 떨치게 된다.

그동안 목포에서 열린 크고 작은 문화 예술 행사들을 하나로 묶어 '목포사랑가을 축제 페스티벌'으로 명명한 이번 가을 대



목포시가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4색의 도시 목포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적극적인 도시 브랜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국도 2호선 관문인 영산강 하구둑에 설치된 '남만항구 목포'와 '맛의 도시 목포' 깃발 모습.

축전은 오는 6일 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 개통과 맞물려 목포가 핫 플레이스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시는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4색의 도시 목포의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깃발 마케팅' 등 적극적인 도시 브랜드 마케팅을 펼치기로 했다.

먼저 목포로 유입되는 관문인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나들목에서 북향 방향 도로변에 대형 BI(Brand Identity) 기(旗)를 세웠다.

이기는 깃봉 높이 30m에 '남만항구 목포'라고 적힌 깃발은 가로 5.4m에 세로 3.6m로 제작됐다.

또 '남만항구 목포'와 '맛의 도시 목포'를 홍보하는 소형 깃발도 국도 2호선 관문인 영산강 하구둑 등 6개소에 130개를 설치했다. 이밖에도 서울역, 수서역, 용산역, 무안공항, 목포국제여객터미널 등 주요 교통 거점에도 LED 이미지 광고를 통해 도시 브랜드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 씨월드고속훼리, 제주도 사랑투어 19년째 계속

씨월드고속훼리(주)의 '천사들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여행'이 19년째 계속되고 있다. 천사들과 함께하는 제주도 사랑투어는 1998년을 시작으로



진행됐으며 소년소녀가장 초청 제주도 여행이 올해 18회로 여전히 진행 중이다.

자칫 소홀해 질수 있는 보호시설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시작한 여행이 이회장의 꾸준한 관심과 후원으로 해마다 많은 아이들에게 선물을 안겨주고 있다.

제주 사랑투어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퀵메리호'를 타고 1박2일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제주의 유명 관광지와 현장 체험 학습을 할 수 있는 알찬 일정으로 꾸며졌다. (사진)

특히 이번 사랑투어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정 범죄피해지원센터와 함께 피해자 가족과 봉사자들이 함께했다. 목포를 비롯한 해남·신안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지내는 학생들과 관계자 200여명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

이혁영 씨월드고속훼리 회장은 "어려운 환경에서 외롭게 자라는 아이들이 제주도 여행을 통하여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장난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표출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 기자 kjs0533@

## 목포시 슬로시티 조례 입법예고... 10월 1일 비전 선포

목포시가 지난 6월 국제슬로시티 가입이후 차별화된목포슬로시티조성을위해오는 10월 1일 비전을 선포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나선다.

목포시는 26일 슬로시티활성화를위해행정·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고 슬로시티 정신을 확산·전파시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목포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는 ▲종합계획 수립 ▲슬로시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와 직무 등에 관한 규정 등이 담겼다.

슬로시티 사업으로 지역개발, 생활환경 정비, 자연환경 보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광 진흥 등에 관한 사업이 포함됐다.

또 종합계획을 수립할 운영위원회를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혜강 목포시 관광기획팀장은 "이번 조례는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보·교육·행정·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역량강화를 위해 슬로시티 관련 교육이나 견학을 실시하는 의무규정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국제 슬로시티로 지정된 외달도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홍보 서포터즈들. (목포시 제공)



목포시가 연말까지 근대역사문화 공간 내 15개소의 문화재 안내판을 읽기 쉬운 문구로 교체하는 안내판 정비사업을 펼친다. 근대역사관 2관(옛 동양척식회사 목포지점) 앞에 설치된 안내판을 관광객이 바라보고 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 문화재 안내판 이해하기 쉽게 바뀐다

### 옛 일본역사관·호남은행 등 시, 연말까지 15개소 교체

그동안 전문용어나 한자어로 쓰여 이해하기 어려웠던 문화재 안내판이 읽기 쉽게 바뀐다.

목포시는 근대역사문화 공간 내 산재된 문화재 15개소 안내판의 외형과 문안을 정비하는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을 연말까지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문용어와 한자어 등으로 쓰여 이해하기 어려웠던 문화재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안을 쉽고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안내판 색상과 형태에 통일성을 부여해 전국 어디서나 안내판 색상만 보면 문화재임을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문화재청의 취지다. 안내판의 영문·한자 번역도 통일된다.

목포시는 이번에 1차로 사업비 6000만원을 들여 국가지정 문화재 4곳(옛 일본역사관, 옛 호남은행, 옛 목포부청 서고, 옛 심상소학교)과 도지정문화재 2곳(옛 동척 목포지사 건물, 목포진지) 등 모두 6개소의 안내판을 교체한다.

특히 국가지정 문화재는 4개 세트로 구성된 종합안내판 형태로 세워진다.

종합 안내판은 12mm 두라늄으로 제작돼 매우 단단하고 디자인 또한 정교한 게 특징이다. 3D 입체영상 안내판도 선보인다.

이승만 목포시 도시문화재과장은 "지붕 없는 박물관인 근대역사문화 공간 내 문화재를 전국에 알리는 기회로 삼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더욱 친근한 문화재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관광객들의 반응을 모니터링해 개선 대상을 모든 문화재 안내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 목포 해상케이블 탑승 요금 결정

### 일반 캐빈 왕복 2만2000원 목포 시민은 1만8000원

다음달 6일 개통을 앞두고 목포 해상케이블카의 탑승요금이 결정됐다.

26일 목포시에 따르면 일반 캐빈의 경우 왕복을 기준으로 13세 이상 개인은 2만2000원, 단체는 2만1000원이고 국가보훈대상자와 장애인, 경로 우대자는 2만원이다.

관심사였던 목포시민은 1만800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바닥이 보이는 크리스털 캐빈은 일반 캐빈에 비해 5000원이 더 비싸다.

운영시간은 하계인 3월부터 10월까지는 일요일·목요일은 오전 9시부터 10시

까지, 금요일과 토요일은 밤 11시까지며 동계인 11월부터 2월까지는 하계보다 종료시간이 각각 한 시간씩 앞당겨진다.

유달산 리라유치원·마당바위·고하도 공생원 구간 3.23km를 왕복하는 목포해상케이블카는 해상 820m, 육상 2.41km로 해상케이블카로는 국내에서 가장 길다. 지주 17곳 가운데 최고는 높이 155m로 설치됐다.

두 차례 개통 연기 등 우려quot을 겪으며 당초 사업비를 초과해 750억원 가량이 투입됐다.

27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궤도사업 준공 승인과 29일 목포시의 도시계획시설 공사완료 공고를 거치면 행정절차는 마무리된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



# 호남동 대원빌딩 특별 "특별분양"

## 높은 전용면적 75%

## 11,12층 천정고 6M

## 분양가 470만원 ~

## 환기 공조 시스템 완비

## 중앙 냉난방 시설완비

## 300대이상 주차공간

# "추천업종"

1 **휘트니스센터, 레저스포츠 시설**

2 **특급 한방병원, 공공기관 사무실**

3 **일반/공유오피스 사무실**

4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분양문의 : (주)대원빌딩

# 062) 234-1233

위치 : 동구 천변우로 369 (호남동 23-2)